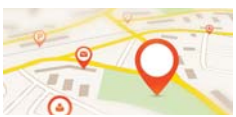




1.산열매나무숲. 2.3.한라생태숲의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4.한라생태숲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체험할수 있게 진행한 특별프로그램. 사진=한라생태숲 제공

온갖 동식물 가득한 한라산 식생의 축소판



제주 핫플레이스 (45) 한라생태숲

신록의 빛이 읊트는 5월도 어느새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제주의 숲은 절정의 푸르름을 뽐낸다. 여러 숲 중에서 특히 한라생태숲은 '한라산 식생의 축소판'으로 불릴 정도 제주 숲의 매력을 잘 간직하고 있다. 때 마침 이번 주말에는 한라생태숲 인근에 있는 사려니숲길에서 '제11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도 열린다고 하니 시간만 넉넉히 낸다면 숲의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제주시 용강동 5·16도로변에 자리잡은 한라생태숲은 원래 목장으로 쓰다가 버려진 황무지였다. 제주도는 2000년 이 황무지를 생태 숲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발 550~912m에 수백 종의 식물과 수십만 그루를 심는 등 9년 간의 긴 준비시간 끝에 2009년 9월 한라생태숲이 문을 열었다.

한라생태숲에 들어서면 구상나무가 먼저 탐방객을 맞는다. 제주도 상징 꽃나무도 군락을 이루고 있고 두종류 나무가 하나로 이어진 연리목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한라생태숲은 저마다의 주제를 지닌 숲을 갖고 있어 매력을 더한다.

구상나무숲, 참꽃나무숲을 비롯해 목련숲, 단풍나무숲, 빛나무숲 등 13개 테마로 구성된 한라생태숲은 훌륭한 수목원 역할을 하며 숲의 식생가

지 풍성하게 키운다. 개원 당시 한라생태숲에 서식하는 동물은 500여종, 식물은 760여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동물은 698종, 식물은 910종으로 크게 늘었다.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두점박이사슴벌레, 물방개, 애기뿔쇠똥구리, 삼광조를 포함해 천연기념물 팔색조, 제주족제비, 노루, 오소리도 한라생태숲에 등지를 들었다.

버려진 황무지 9년간 가꾼 끝에 2009년 개장... 9km 이어진 숲길 구상나무 등 13가지 테마숲 조성

한라생태숲 전체 탐방코스의 길이는 9km에 달하며 각각의 숲에 따라 걷는 시간은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한라생태숲은 대부분 평탄하고 곳곳에는 평상과 그늘집이 있어 쉬엄쉬엄 걷기에 좋은 곳이다.

한라생태숲 입구 왼쪽에는 2층 짜리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제주 앞바다, 한라산 전경, 중산간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한라생태숲에 13개 테마숲 말고도 '숯모르편백

숲길'이란 색다른 탐방로도 조성돼 있다. '숯모르'는 숯을 구웠던 동승이를 뜻하는 제주어로 숯쟁이들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라산 중턱 곳곳에 돌로 숯가마를 쌓아 참숯을 구웠다. 숯모르편백숲길은 한라생태숲 경계선을 따라 절물자연휴양림과 노루생태공원까지 가는 길이 5.6km 코스로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울창하게 숲길을 덮고 있다.

한라산생태숲은 숲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다양한 숲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일 오전10시와 오후 2시에 두차례 숲해설가와 함께 한라생태숲을 경험할 수 있고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에는 생태교육, 놀이 자연물 이용 만들기 체험 등 가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계절에 따라 테마 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운영된다.

또 유아숲지도사와 함께하는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이 평일에 도내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정기 프로그램인 '깨비숲 친구들' '달팽이 숲'도 준비됐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숲해설, 유아숲체험)은 한라생태숲 홈페이지(<http://hallaecoforest.jeju.go.kr>)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한라생태숲은 "한때 불모의 땅이었던 이곳은 다양한 동·식물의 중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변모해 산림생태계 연구와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이라며 애정 어린 관심을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5)오경훈 연작소설 '제주항' ④



제주도가 떠난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009)에 실린 하늘에서 본 제주항.

수탈과 폭력의 통로... 약해지는 저항

페지를 쥌는 주인공 '동거' 개발 바람과 외래인 유입 "저쪽 눈에 비치는 이쪽은"

"나는 황량하고 바람부는 풍토 속에서 스며들어온 지난 시간대의 많은 축적물들을 잊을 수가 없다."

오경훈 작가는 첫 창작집 '유배지' (1993)에서 소설의 밑바닥에 깔린 제주섬의 한(恨)을 이런 말로 풀어놓았다. 그의 의식 깊은 곳에 놓인 제주망 사람들은 나라에 바칠 진상품을 키우는 일에 매달려야 하고 관리들에게 재물을 빼앗기며 살아야 했다.

연작소설 '제주항' (2005)은 그 수난사를 들여다봤다. 18세기 중엽 제주 목민관은 제주항의 기반이 된 산지포구를 축항하면서 몸소 돌을 젓지만 그것이 때때로 수탈과 폭력의 통로가 되었다.

'제주항'의 마지막 아홉번째 소설은 항구의 어제를 지나 오늘을 보여주는 '동거(同居)'다. 제주항 주변 지명들을 곳곳에 등장시키며 개발 열기와 그 주변에 모여든 인간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동거'는 신시가지 개발 사업 등 건축업을 하며 돈을 모은 사업가였지만 개발 유망지의 땅을 사들이다 재산을 날린 58세 원석이 주인공이다. 아내마저 병으로 잃고 아들마저 바다 건너 이민가버린 원석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페지를 쌓아놓은 창고이자 거주 공간은 제주시 임항도로변 철머리동산 위 망양정이다. 한 발짝 걸어나오면 항구를 조망할 수 있

는 곳으로 사라봉 정상에 세워진 정자 이롭과 같다. 원석은 손수레에 짐을 높이 쌓아놓고 탐동길을 돌아 산지교를 건너 금산 언덕길을 오른다. 시기로 내려가면 사사건건 분노가 치미는 원석이지만 그곳을 빠져나와 철머리동산을 향할 때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지금, 바다를 침탈했던 왜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개발 바람이라면 과장일까. 건축업 시절 알고 지내던 윤전을 통해 온천개발에 뛰어들지만 끝내 파산한 원석은 '원주민'의 한 얼굴이다. 윤전처럼 훗날 장학회를 세운 사람도 있지만 원석은 '외래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정적하지 않아 성공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밝힌다. 거기에 발을 딛지 않으면 개발을 통해 크루즈(상해에서 들어온 중국 여객선 밀리호)를 타고 세계 일주하고 싶은 원석의 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이제수의 난이 일어난 20세기 초입엔 건입포 어민 한기들('제주항 2-모변')이 외부의 약탈에 맞서려 했지만 소설 속 시대가 흐르면 저항의 몸짓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일곱번째 연작 '어선부두'에서 한일어업협정으로 반복되는 고달픈 현실이 그려지지만 주인공 선우는 뱃일을 그만두고 싶은 낯선 사내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가출한 아내를 찾아주는 명목으로 돈을 쥐어주고 만다.

하늘을 바다를 떠나는 우리들은 어느새 '저쪽 사람들의 눈에 이쪽은 어떤 모양으로 비치고 있을까' ('제주항 6-빌린 누이')를 떠올리는 원주민이 된 걸까.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19 FOR PEACE & PROSPERITY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2019년 5월 29일(수) - 31일(금)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록기간 2019년 4월 15일(월) - 5월 17일(금) 등록페이지 <http://jejuforum.registrations.kr>

반기문
제2대 유엔 사무총장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말콤 턴불
전 호주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그레이엄 앨리스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

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장관

자크 랑
전 프랑스 문화장관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JDC 평화콘서트 5월 31일(금) 19:30-21:00

자이언트, 캔탈포디보X마티아, 소리풍경 어린이 합창단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주최 아시아재단 동양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